

## 번역교육시 번역평가모델 활용의 필요성 고찰\*

신 지 선  
(이화여대)

### 1. 서론

평가라고 하면 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합격/불합격, 진급/유급, 상위권/하위권을 가르는 고통스러운 통과시험이라는 인식에서, 부정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사실상 평가는 학습의 종결점이라기 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출발점이며, 교육과정의 목표라기보다는 향후 더 나은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수자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가 그 과정에서 주로 가르칠 학습목표와 내용을 결정하고, 학습자가 ‘평가 결과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이후 집중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평가를 둘러싸고 유독 번역분야에서는 팽팽한 이견과 뜨거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번역의 본질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 명의 번역사가 같은

---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원문을 번역해도, 백 개의 다른 번역문이 나오는 것이 번역이라는 활동의 특성이다. 서로 다른 이들 백 개의 번역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을 때, 평가기준과 개인적 취향에 따라 평가자들 간에 전혀 다른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번역의 특성이다.

평가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평가결과에 동의하고 신뢰하여 평가가 본래 목적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려면,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이고 훌륭한 번역인지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번역평가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번역사, 번역연구자, 번역비평가, 번역의뢰인, 번역물 사용자 등 번역과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관계자들 간에 좋은 번역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번역을 평가하는 잣대도 서로 다르다보니, 영똥하게 그 폐해가 번역을 공부하는 예비번역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어떤 번역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그 평가기준을 지침으로 삼아 번역실력을 연마하고 잘못된 번역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집단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저렇게 평가한다면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번역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번역교육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번역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찰한 뒤, 이와 관련된 평가실습 사례를 제시한다. 둘째, 번역평가 방식에 관한 학계의 논의를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에서 제시한 다양한 번역평가모델을 소개한 뒤, 각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러한 번역품질 평가모델을 번역교육에 도입할 때,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찰하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평가모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2. 교육현장에서 번역평가의 중요성

다양한 번역평가 방식은 실제 평가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번역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번역이 잘 된 번역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도출해 낸 평가모델을, 평가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모델에서 제시하는 평가항목 중에 어떤 항목은 평가시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평가에서 오역이라고 분류하는 기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떤 모델은 번역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모델이 아닌가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또한, 번역문 안에 오역의 차원과 심각한 정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그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델로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회의가 들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텍스트 장르, 담화유형, 번역텍스트의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평가, 출발어(Source Language)와 도착어(Target Language)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텍스트 맥락은 배제한 상태에서 미시적, 지엽적 실수만 부각시키는 평가, 오역에 대한 함리적인 설명이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문만 높이 평가하고 번역문은 낮게 평가하는 사대주의적 평가, 번역사에게 번역전략이나 번역방식에 관해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학전문가나 문학전문가가 권위를 내세워 번역관행 전반을 평가절하하는 일방적 평가 등 번역평가 자체에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번역평가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역평가는 다양한 집단에서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호니그(Hönig 1998: 15)는 번역 관계자들을 번역텍스트 사용자, 전문번역사, 번역학 연구자, 예비번역사로 분류한 뒤, 각각의 집단에서 번역품질평가를 요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번역텍스트 사용자는 번역을 의뢰한 번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번역물의 품질을 믿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평가결과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전문번역사는 시장에서 낮은 번역료에도 기꺼이 일을 하는 아마추어 번역사와 차별화되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번역을 입증할 증거로 평가를 필요로 한다. 한편 번역학 연구자는 실무번역사들이 보기에 번역학이 너무 학문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

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번역사는 번역평가가 없다면, 번역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평가를 원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집단은 번역을 공부하는 예비번역사와 번역을 가르치는 번역교수자이다. 번역평가는 전문번역사가 되기 위해 실력을 연마하는 예비번역사와 전문번역사를 길러내는 번역교수자에게 매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같은 번역물을 평가할 때도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수업에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활용해 보는 것이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우선 학습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는 자신의 번역물이 어떠한 각도, 층위, 차원에서 어떠한 지표, 항목,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할 수 있다. 본인의 번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만, 전략적 학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 전반적인 번역능력 함양이 번역교육 과정의 상위목표라고 한다면, 매 수업시간의 하위목표는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번역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내용과 평가방식에 익숙해져야, 본인의 번역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번역물도 객관적,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가평가(self assessment) 및 동료평가(peer assessment) 능력은 예비번역사가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기술이다. 졸업 후 전문번역사의 길로 들어섰을 때, 본인의 번역에 대해 냉철하고 정확한 자가평가를 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양질의 번역을 하기 어렵고, 타인의 번역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고는 다른 번역과 차별화되는 번역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번역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평가기술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평가모델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번역 평가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과 그에 따라 오역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의뢰인이나 번역물 사용자가 오역이라고 번역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때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번역이 왜 적절한지, 왜 오역이 아닌지를 이해시키려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여 자신의 번역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언어내적, 언어외적 복합적 요인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교수자는 예비번역사들에게 번역을 평가할 때 어떠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번역을 가르치는 것이 교수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째, 아직도 교육현장에는 번역학 전공자나 전문번역사가 아닌, 번역경험이 없는 외국어 전공자나 문학 전공자가 번역을 가르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번역의 학문적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외국어와 한국어를 잘 알면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통념이 만연해 있고,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전문번역사보다 문학전공자가 작품 이해력이 뛰어나 번역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교수자의 프로필이 다양하다.

문제는 번역과 번역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자가 번역을 가르칠 때, 전형적인 외국어 교사의 관점에서 번역을 가르칠 소지가 다분하여 ‘번역’이 아닌 ‘해석’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통적인 번역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 번역을 평가할 때 언어의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번역수업에 번역평가모델을 활용하면 교수자가 외국어교습 관점이 아닌 번역교습 관점에서,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와 텍스트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번역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번에는 번역전공자나 전문번역사가 번역을 가르칠 때, 본인의 번역 스타일을 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문을 평가하는 잣대로 흔히 거론되는 ‘충실성’과 ‘가독성’ 가운데, 충실성을 강조하는 교수자가 있을 수 있고, 가독성을 중시하는 교수자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충실성과 가독성의 관계가 어느 한 쪽을 살리면 다른 한 쪽은 희생되어야만 하는, 양립이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므로 충실성과 가독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가 지적한 것처럼 번역사는 “원문 작가는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 번역문 독자를 작가 쪽으로 움직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번역문 독자는 가능한 한 그대로 두고, 원문 작가를 번역문 독자 쪽으로

움직여 갈 수도” 있어서<sup>1)</sup> 번역스타일에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Munday 개인용 2001: 28). 번역 역사상 극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직역-의역 갈등은 평가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직역을 잘된 번역으로 평가하는 교수자와 의역을 좋은 번역으로 평가하는 교수자로 나뉠 수 있다.

학생들이 전문번역사로 활동할 때, 텍스트 유형, 대상독자층, 번역의뢰인의 요구 등에 따라 직역 쪽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의역 쪽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 선호하는 번역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려면 다양한 평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번역평가모형을 수업에 활용하면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번역은 객관적, 체계적, 보편적인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주관적이며, 심지어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들 간에도 통일성,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그러한 이유에서 각 학생들에게 본인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를 이해시키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수자의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하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의욕은 고취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를 위해서 번역평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번역교육시 소개하면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숙지시켜, 평가의 잣대가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직접 본인과 급우의 번역을 평가해보도록 하면, 학생들은 각자의 부족한 점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문헌조사와 이론연구를 통해서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구체적인 평가모형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1) 베누티(Venuti 1995)는 앞의 번역방식을 ‘외국어화 번역(foreignization)’, 뒤의 번역방식을 ‘자국어화 번역(domestication)’이라고 표현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직역과 의역 개념으로 이해한다. Foreignization과 domestication은 ‘들이밀기’와 ‘길들이기’(이희재 2009), ‘이국화 번역’과 ‘자국화 번역’(이근희 등 2005)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평가할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평가실습을 진행해 보았다.

### 3. 학생들의 평가실습 사례

학생들이 번역문을 평가해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고, 번역의 질에 대한 평가결과가 평가자에 따라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한영전공 1학년 학생들 9명에게 실제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였다. 평가대상 텍스트는 샐린저(Salinger)의 *The Catcher In the Rye*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서 『호밀밭의 파수꾼』(두 권으로), 원문(ST) 일부와 번역서 두 권에서 해당부분의 번역문(TT)을 나누어준 뒤, 두 번역문 중에서 어느 번역문이 어떤 이유로 더 잘된 번역인지를 평가해 보게 하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다. 평가내용을 너무 길게 서술한 경우, 연구자가 요약했으나 표현은 학생들이 평가서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았다.

학생	평가결과	평가내용
1	TT 1	TT1은 구어체와 속어를 살려 번역하고 짧고 경쾌하게 진행되었으나, TT2는 구구절절 설명. 문학번역의 경우, 가독성보다는 문학적 묘미를 살린 TT1이 독자에게 더욱 유용할 것.
2	TT 1	TT1은 작가의 톤과 문체의 형식을 한국어스럽게 표현. 단어나 어미처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소설번역의 스타일이 원문의 느낌과 가깝게 느껴짐. TT2가 원문에 더 충실하지만, TT1이 화자의 캐릭터상 더 적절한 번역으로 보임.
3	TT 1	TT1이 뉘앙스, 어조, 호흡, 느낌, 화자의 기분을 더 잘 전달함. TT2는 더 정확한 번역일지 모르나 10대 청소년의 말투로 느껴지지 않음.
4	TT 2	TT1은 화자의 어투가 급작스럽게 변하고 불필요한 접속사 남용

2) 번역 시기, 번역사의 성별, 번역 스타일이 상이한 유경환, 노빈의 공역서와 공경희의 번역서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원문의 제1장을 번역한 부분을 평가하였다.

		으로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며 오역도 눈에 띈. 뉘앙스를 옮기는 데도 실패한 부분이 많음. 반면 TT2는 전체 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가독성 측면에서도 성공했고, 문장연결 및 끊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5	TT 2	TT1은 오역으로 인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고 부자연스러움.
6	TT 2	TT1은 술어처리에 통일성이 없어 가독성이 떨어지며 오역이 보임. TT2는 오역이 없고 1인칭 화자의 고백하는 듯한 문체를 잘 살리고 있으나 화자의 거친 표현이 순화되어 번역된 것 같아 원문의 느낌이 크게 살지 못함.
7	TT 2	TT2가 전체적으로 뉘앙스와 뜻을 잘 살렸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썼음. TT1은 너무 원문의 문장구조를 쫓아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깨짐.
8	결정못함	두 번역서 중 어느 글이 더 좋다고 결정하기 어려움. TT2는 원문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으나 register를 잘 살리지 못함. TT1은 원문의 분위기와 주인공의 성격을 잘 살렸지만, 오역이 눈에 띄고 너무 직역으로 번역하여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9	결정못함	TT1은 영어명사를 한글로 옮길 때 영국식으로 번역한 점이 보이고 오역, 첨가가 눈에 띈. TT2는 화자의 건방진 말투를 잘 반영함. 문장의 길이와 번역문의 문장 길이가 유사해 호흡이 안정적임.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잘 된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잘 된 번역으로 TT1을 지정한 학생이 3명, TT2가 4명, 각기 장단점이 있어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 2명으로, 두 번역문에 대한 평가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 잘 된 번역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평가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평가자가 가독성, 전체적인 톤, 뉘앙스, 문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도, 어느 번역에서 그 항목이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어 문학작품을 받아들이는데 독자반응이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어떤 번역이 잘 된 번역이라고, 모든 평가자들에게서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번역문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함의한다.

둘째, 평가자에 따라 평가기준의 구체적, 객관적 정도가 상이하다. 평가기준



과 평가항목이 보다 구체적인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직관적인 감상을 평가의 잣대로 사용한 학생들도 있었다. 평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평가서에 적은 내용에 양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언급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기술한 학생도 있었고, 기준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학생, 전체 평가내용이 몇 줄에 그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평가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셋째, 전체 번역의 질을 논할 때, 어떤 평가항목을 더 우선시하는지가 평가자에 따라 다르다. 오역이 있어도 원문의 문체를 잘 살렸기 때문에 더 잘 되었다고 평가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원문의 문체는 더 살렸지만, 오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문이 더 잘 되었다고 평가한 학생도 있었다. 평가시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텍스트의 장르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평가서에 기술한 학생은 학생 1과 학생 2, 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평가시 고려해야 할 언어외적 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번역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번역이 더 완성도가 높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보아야 체계적인 평가, 일관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이번에는 번역학계에서 평가를 둘러싸고 그동안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는지, 그 결과 평가방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 4. 번역평가에 관한 세 가지 관점

번역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번역의 기원만큼이나 역사가 유구하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sup>3)</sup>. 호니그(Hönig 1998: 16)는 번역평가와 관련하여 이렇게 논란

3) 일례로, 영미문학연구회의 영미고전문학 번역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번역사인 정영목은 “영미언의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단상”에서 평가의 기준이 “부실하지 않은 번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필지언정 적극적인 의미의 좋은 번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

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한다.

- 기존의 번역평가모델은, 번역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번역을 평가하는 여러 주체 가운데, 누구의 평가기준을 우선시할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 오역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번역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 번역품질평가는 그동안 주로 오역을 수량화하는 데 활용되었는데, 경계선상의 번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오역의 심각한 정도를 차등화하여 배점을 달리하는 방안이 있지만, 무엇이 치명적 오역이고 무엇이 사소한 실수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다.
- 평가모델마다 평가항목의 개수와 내용이 다른데, 각각의 항목이 전체의 질을 평가하는데 똑같이 중요한지 의구심이 생긴다.
- 평가기준이 평가의 목적에 따라, 즉 발달평가(formative assessment)인가 총괄평가(summative assessment)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번역평가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어서, 번역사와 평가자, 의뢰인과 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공통된 평가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평가에 관해 진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번역평가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의를 하우스(House)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한다(2001: 244). 첫 번째는 주관적 관점이다. 즉 번역은 번역사의 주관적 해석, 문학적 직관, 번역사의 지식에 의존하는 개인의 창조적 행위이므로, 번역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

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평가자의 일원이었던 오길영은 “객관적인 평가의 틀-정영목 선생의 글을 읽고”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차이를 설명하였으며, 번역연구자이자 번역사인 조성원은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소고”에서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평가기준이 평가자들마다, 혹은 평가대상작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지적하며 번역평가에 기술번역학적 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번역분야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통적 암묵적으로 형성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 견해를 두고 하우스는 이러한 평가방식은, ‘내용’과 ‘이미’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번역이 언제, 어떻게, 왜 좋은지를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 외에도 번역을 평가자의 주관과 직관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한다면, 번역은 통일되고 일관된 평가체계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평가가 난무하는, 언제나 평가결과에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비전문적 분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방식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번역품질 전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게 하고, 번역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인 전문가로 인정하지 못해 번역사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 평가방식에 이어, 평가와 관련된 두 번째 관점은 반응기반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행동주의적 방식과 기능주의적 스키포스(Skopos)중심 방식이 있다. 우선 행동주의적 평가방식은 미국의 구조주의와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 번역을 평가하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나이다(Nida 2000)는 좋은 번역이란 기존의 형식적 언어적 등가가 이루어진 번역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의 반응에서 등가가 이루어지는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번역논의에서 중심축을 이루어온 등가 개념에 독자의 반응과 텍스트의 효과를 접목시킨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나,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독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평가기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독자반응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접근법에 스키포스(Skopos) 중심 평가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번역의 스키포스이므로 번역문이 목표문화의 규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이다(House 2001: 245). 이러한 번역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능주의적 평가방식은, 번역관련 논의를 원문 텍스트 중심의 언어적 집착에서 분리시켜 텍스트 외부의 요인을 중심으로 번역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우스의 지적처럼 번역의 ‘기능’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번역

의 스키포스가 언어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노드(Nord)는 스키포스 이론에 대한 비판을 “행위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번역에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하였다(Nord 1997: 109). 즉, 스키포스 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실용텍스트 번역은 목적과 기능이 분명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나,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집필할 때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능주의적 평가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4)</sup>.

반응기반 평가방식 다음으로 평가를 둘러싼 또 하나의 담론은 텍스트 및 담화중심 접근법이다. 여기에는 투리(Toury)등이 주장하는 번역텍스트 중심 접근법과 캣포드(Catford), 콜러(Koller), 베이커(Baker) 등이 주장하는 언어학 중심 접근법이 포함된다. 전자는 실증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 연구방식을 강조하여 번역 평가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었는지 사례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후자는 번역학에 화용론, 사회언어학, 담화분석론 등을 도입하여 평가시 텍스트 맥락과 텍스트간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여 원문과 번역문간의 관계를 평가한다(House 2001: 24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자가 직관에 의존해 번역을 평가하던 절대적인 방식에서 독자의 반응, 번역의 목적, 담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상대적인 방식으로 평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보다 체계적, 분석적, 실증적, 합리적, 구체적 평가를 목표로 번역평가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논의에서 발전한 결과물로, 번역을 교육할 때 평가의 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살펴보겠다.

4) 이러한 비판에 대해 페르미어(2000: 224)는 “시를 쓴 시인도 출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지선(2005: 132)은 “실제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예술활동이나 예술작품은 상상하기 어렵다. 갑자기 산기슭에 핀 한 송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불현듯 시를 한 편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이 시를 읽을지, 어떻게 이 시가 읽힐지,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시장에 선보일 것인지 등, 명확한 의도와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를 쓴 목적은 찾아볼 수 있다.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라고 하여 모든 번역행위에는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 5.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모델

그러면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평가모델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자.

번역전략을 결정할 때, 텍스트 유형을 반드시 고려할 것을 강조한 라이스(2000: 27-38)는 평가에 있어서도 텍스트 종류가 내용 중심인지, 형식 중심인지, 아니면 독자반응 중심인지를 구분하여 각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용 중심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정확한 정보 전달 측면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것이고, 저자의 표현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형식 중심 텍스트’는 미학적 차원에서 스타일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반응 중심 텍스트’에서는 번역문을 읽은 독자에게서도 원문을 읽은 독자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이전의 번역평가가 원문과 번역문의 어휘, 문법, 구조적 특징에만 집중하여 충실성위주로 번역의 질을 비판했다면, 라이스는 원문 텍스트의 장르와 유형에 따라 번역전략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도 달라질 것을 제안하여 번역평가에 기능주의적 시각을 선보였다.

한편 뉴마크(Newmark 1991: 111)는 번역문이 정확한지, 원문에 충실하게 원문을 재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할 때 양적,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양적인 차원에서는 메시지를 빠짐없이 전달했는지와 질적으로는 화용적 차원에서 명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모두 정확히 전달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뉴마크는 평가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모두 필요함을 제안하고, 텍스트를 단어와 문법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상황으로 번역할 것을 강조하여 번역평가에서 화용적 맥락을 도입하였다. 오역의 개수를 세서 번역품질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면,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뉴마크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브루넷(Brunette 2000: 174)은 평가항목을 크게 ‘논리’, ‘목적’, ‘맥락’, ‘언어규범’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각을 하위항목으로 나누었다. ‘논리’는 표층 결속구조(cohesion)와 심층 결속구조(coherence)로, ‘목적’은 원문 저자의 의도와 번역문 독자에게 기대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맥락’은 번역문을 읽을

독자의 배경지식, 시공간적 상황, 사회 문화적 환경, 커뮤니케이션 맥락으로 정의하였고, ‘언어규범’은 문법, 어휘, 표기 측면에서의 오류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브루네티가 제안한 평가모델의 특징은 번역평가에 텍스트 구성측면의 특성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표층 결속구조와 심층 결속구조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에서 평가단위를 문단과 텍스트 전체로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번역학 연구자들이 기능주의적 평가와 비기능주의적 평가, 문학번역 비평과 실용번역 평가로 나누어 번역평가 관련 논의를 진행시켜온 데 비해, 국내의 평가 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번역평가가 공식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점차 이 분야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번역 품질 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문학번역원<sup>5)</sup>과 영미문학연구회<sup>6)</sup>를 중심으로 번역평가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과거에는 번역평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덜 심각한 오류로 분류될 수 있는 어휘차원의 오역 지적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평가자의 직관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국내의 번역평가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의 번역평가모델은 대부분 문학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비평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나 유럽각지에서는 다언어공동체라는 사회적 특징으로 인해 실무번역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번역평가라고 하면, 문학작품의 번역을 비평하기 위한 모델 개발에 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번역에 관심이 있거나 번역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비문학 실용번역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학번역 평가기준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문학번역과 실용번역을 평가할 때 더욱 중

5)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문학번역 평가시스템 연구』(최미경 외, 2007)와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신지선 외, 2007) 등의 대규모 번역평가 사업 진행  
6) <영미문학연구회>의 번역평가사업단은 영미문학 번역서를 검토하여 추천할 만한 번역서를 선정하는 사업 진행

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용번역의 일례로 법률번역의 경우만을 생각해보아도, 문학번역과 법률번역의 평가기준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실용번역의 엄청난 수요와 번역의 품질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 번역평가에 관한 논의가 실용번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구체적인 번역평가모델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상원(2006)은 비평가, 독자들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한국 출판번역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평가 규범을 정리하였다. 크게 원문과의 ‘관련성’ 규범, ‘번역문의 효율성’ 규범, ‘배경지식’ 규범, ‘윤리’ 규범, ‘정책’ 규범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하위규범으로 나누었다. 출판번역 독자들이 번역을 비평할 때 어떠한 평가규범을 중시하며 그 규범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편집인과 번역사는 독자들의 이러한 번역비평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조사한 연구로, 실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전현주(2006)는 번역을 비평하는 텍스트<sup>7)</sup>의 메타비평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을 ‘텍스트 외적요소’와 ‘텍스트 내적요소’로 요약하고, 전자는 번역텍스트의 출판이력, 번역전략, 역자의 역량 및 배경지식, 독자반응으로, 후자는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인 면으로 세분화하였다. 전현주는 비평의 종류, 비평의 주체와 객체, 비평의 수용자, 원문과 번역문의 비평요소, 장르, 평가항목, 번역문 검증방식에 이르기까지 문학비평의 다양한 층위를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이상원, 전현주는 그동안 다양한 집단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행한 비평사례를 수집하여, 체계적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위의 두 모델은 번역학계에서 번역비평에 주목하게 한 선구자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상원의 모델은 출판번역 독자들의 평가규범에서, 전현주의 모델은 번역을 비평하는 비평가의 텍스트에서 평가항목을 추출한 것이어서 실제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번역능력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 이외의 고려사항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학번역을 평가할 때 고려해

7) 『안과 밖』, <교수신문>, <도서신문>, <독서신문>, <출판저널>, 학술지, 단행본, 일간신문, 인터넷, 잡지 등을 대상으로 조사 (전현주 2008: 228)

야 할 다양한 사항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나 기술번역을 평가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위의 두 모델을 바탕으로, 고려대 레토릭연구소에서는 프랑스 명작소설의 번역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한 평가모델의 특징은 평가를 ‘토대평가’와 ‘심화평가’로 이원화한다는 점이다(정혜용 2008: 10). ‘토대평가’ 기준표는 누락오류(자의적인 어휘 누락, 자의적인 구/절/문장 누락), 첨가오류(자의적인 어휘 첨가, 자의적인 구/절/문장 첨가), 표기오류(오타자, 고유명사), 의미오류(어휘의미, 문장의미), 통사오류(구문, 시제, 대명사 및 기타 문법오류)로 구성되어 있고, ‘심화평가’ 기준표는 변형(문단, 문장), 변조(표현, 수사적), 문화어 처리(치환, 설명), 텍스트의 완결성(언어적,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구하나 2010).

이 모델은 평가과정을 이원화하여, 토대평가에서 평가항목을 크게 오류와 불일치로 나누어 오류의 경중을 구분하고, 심화평가에서 언어외적 요인을 고려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다 체계적/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번역평가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순수문학의 번역작품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평가를 이원화 한 것은 이 모델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토대평가 이후 심화평가에서 다루는 언어외적 요인들이 사실은 번역전략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토대평가의 각 항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에서 평가모델로 활용하기에는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번역시 고려해야 할 언어적, 언어외적 세부기준을 소개하고,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다양한 항목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교육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평가표와 성격이 조금 다른 모델로 공공기관의 번역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평가모델이 있다(신지선 외 2007). 이 평가모델은 위의 모델들과는 달리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텍스트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고, 평가대상이 문학번역 텍스트가 아닌 정부기관의 실용번역 텍스트이다. 이 모델에서는 오류를 ‘문법’ 차원, ‘어휘’ 차원, ‘사실관계’ 차원, ‘논리적 구성’ 차원, ‘정보성의 등가’ 차원, ‘도착어 텍스트의 목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세부항목으로 분류한다. 주목할 사항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번역문 사용자를 배려하여 정보성의 등가 차원의 세부항목으로 부연/보충설명 제공 여부



를 포함시키고, 도착어 텍스트 목적 차원 하에 적절한 언어사용역(register)을 평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안내나 홍보 등의 목적성이 강한 텍스트의 경우, 원문 이해를 위해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면 함축된 정보를 외연화(Explicitation)하여 번역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문학번역이 아닌 실용번역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문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법 오류와 사실관계 오류, 논리적 구성 오류 등 각 부분의 오류에서, 심각한 정도가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이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위의 모델을 직접 수업에서 평가모델로 활용하기에는 각 모델에 내재한 한계와 장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소개해줄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교수자는 수업시간에 다룰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모델을 기본으로 소개하되,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모델을 가지고 직접 평가를 해 봄으로써 교수자는 다양한 차원과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번역의 질과 완성도를 평가해 줄 수 있고,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무엇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수자의 번역을 모범답안으로 제시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번역문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인식하여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평가를 둘러싸고, 번역 분야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주목하여, 번역평가에 관한 그간의 담론을 고찰한 뒤 교육현장에서 교습자가 다양한 평가모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크게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평가와 비기능주의적(non-functionalist) 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동안의 평가방식은, 점차 번역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

함에 따라 언어의 미시적 단순오류를 지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커뮤니케이션 맥락과 텍스트의 목적성을 고려하는 거시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분야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친다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자신의 번역이 여러 가지 잣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전략적으로 집중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평가모델을 활용한 평가연습을 통해 번역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평가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향후 자신의 번역을 외부에서 오역이라고 평가할 때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교수자는 번역평가모델을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자칫 번역능력 평가라기보다는 외국어능력 평가가 되기 쉬운 번역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번역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가모델을 통해 자신의 번역스타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번역스타일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보다, 평가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을 고려해 여러 가지 번역전략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토대로, 실제로 학생들에게 평가기준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평가능력과 평가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평가실습을 해 보았다. 그 결과, 잘 된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평가자에 따라 평가기준의 구체적, 객관적 정도가 상이하며, 전체 번역의 질을 논할 때, 어떤 평가항목을 더 우선시하는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평가기준과 항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수업 시간에 평가모델을 가르치고 활용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모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평가모델의 장단점을 고찰한 본 연구에 이어서 후속연구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직접 활용하여 번역수업을 진행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구하나 (2010) 「번역평가와 용인성」, 『통번역학연구』13(2): 1-28.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번역시 스코포스 이론의 적용」, 『번역학연구』6(2): 125-140.
-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8(2): 75-102.
- 신지선, 정호정, 염행일 (2007)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학번역원.
- 정혜용 (2008) 「번역평가에서 번역비평으로」, 한국번역비평학회 동계 심포지움 발표문. 고려대 레토릭연구소.
- 오길영 (2004) 「객관적인 평가의 틀-정영목 선생의 글을 읽고」, 『안과박』 17: 67-73.
- 이근희 (2005) 「말뭉치를 활용한 ‘by’의 번역투 연구」, 『동화와 번역』 10: 7-40.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전현주 (2006) 「번역비평에 대한 비평적 분석」, 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1): 215-257.
- 정영목 (2004) 「영미언의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단상」, 『안과박』 16: 225-231.
- 조성원 (2007) 「번역평가 기준으로서의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하여-영미문학 연구회 번역평가사업에 대한 소고」, 『안과박』 23: 96-121.
- 최미경, 여건중, 이상원 (2007) 『문학번역 평가 시스템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Brunette, Louise (2000) ‘Towards a Terminology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Comparison of TQA Practices’, in Carol Maier (ed) *Evaluation and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169-182.
- House, Juliane (1977)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2001)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Linguistic Description versus Social Evaluation', *Meta* 46(2): 243-257.
- Hönig, Hans (1998) 'Positions, Power and Practice: Functionalist Approaches and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and Qual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6-34.
- Kussmaul, Paul (1995)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auscher, Susanne (2000)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Where Can Theory and Practice Meet?' in Carol Maier (ed) *Evaluation and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149-168.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91) *About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Nida, Eugene (2000)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in Venuti(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26-140.
- Nord, Catharina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 Jerome.
- Schäffner, Christina (1998) 'From 'Good' to 'Functionally Appropriate': Assessing Translation Quality' in Christina Schäffner (ed) *Translation and Qual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5.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rmeer, Hans (2000)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21-232.
- Williams, Malcolm (2004)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n Argumentation-centered Approach*, University of Ottawa Press.

[Abstract]

## Applying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odels to Translator Training

Shin, Jis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to apply variou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odels to translation teaching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assessment. Translation assessment has been an area of heated debate and controversy due to its subjective, incoherent and unsystematic nature. Despite these shortcomings, translation assessment plays a pivotal role in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eaching translation. Accordingly, familiarizing both students and teachers with various TQA models is in dire need.

For students, TQA models could raise students' awareness of the yardstick they are evaluated against in the near future, help students acquire systematic assessment skills, and teach them to effectively defend themselves in case of disagreement over how to define translation errors. TQA models are also conducive to teaching translation on the part of instructors. Various models could expose students to clients' diverse perspectives at various levels, enabling teachers to avoid insisting upon their particular criteria. In addition, TQA models can be employed to effectively address students' weaknesses with the specified categories.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proposes various TQA models be actively explored and applied in translation classroom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 Key Wor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QA models, functionalist approach, non-functionalist approach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조교수

[jisunshin@ewha.ac.kr](mailto:jisunshin@ewha.ac.kr)

관심분야: 번역교육, 번역평가, 아동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